



최진호



주홍철



이보미



장하나

# 후반기 동반 티오프...남녀 골프, 더 뜨거워진다

## KPGA 카이도시리즈-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4일 개막

KPGA 시즌 '첫 멀티우승자' 나올지 주목  
13개월만에 출전한 이보미 성적도 관심

국내 남녀 골프투어가 함께 기지개를 펴고 8월 마지막 주말을 달군다. 한국프로골프(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8월 24일부터 각각 6차 카이도시리즈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을 열고 하반기 열전에 돌입한다.

### ●휴식기 마친 KPGA, 첫 다승자 나올까

KPGA는 7월 16일 막을 내린 5차 카이도시리즈 진주저축은행 남자오픈을 끝으로 한 달 넘게 휴식에 들어갔다. 8월 24일 부산 기장군 해

운대 컨트리클럽 로얄·실크코스(파 72·7054야드)에서 열리는 6차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 그룹 다이나믹 부산오픈(총상금 7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 판문을 연다.

관전 포인트는 2017시즌 KPGA 첫 다승자 출현 여부다. 2016시즌에는 최진호(33·현대제철)와 주홍철(36·동아회원권)이 각각 2승씩을 달성했지만 올 시즌은 아직까지 멀티우승이 없다. 상반기 11개 대회는 개막전이었던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맹동섭(30·서산스콜프앤리조트)을 시작으로 5차 카이도시리즈 강경남(34·남해건설)까지 11명이 사이좋게 트로피를 나누어 갔다. 이번 대회에는 상반기 우승자 11명 가운데 7명이 출전해 첫 다승에 도전한다.

6차 카이도시리즈는 2006년 KPGA 선수권 대회 이후 KPGA가 11년 만에 부산에서 치르는 대회다. 그래서 부산 출신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해 KPGA 장타왕에 오른 김건하(25)를 비롯해 박은신(27)과 박배종(31·벡스), 김재호(35·휴셈) 등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 ●일본무대 제패한 이보미, KLPGA까지 평정할까

KLPGA는 직전 대회였던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몰아닥친 '여고생 골퍼' 최혜진(18·학산여고)의 돌풍을 뒤로 하고 21번째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8월 2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컨트리클럽(파 72·6516야드)에서 열리는 하이원리조트 여자

오픈(총상금 8억원)이 그 무대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역시 강원도 인제 출신의 이보미(29·훈마골프)다. 이보미는 20일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컷 레이디스 오픈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거두며 그간의 부진을 모두 씻었다. 이번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나들이로 국내와 고향 팬들에게 오래간만에 인사를 건넨다. 이보미의 국내무대 출전은 2016년 7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13개월만이다.

이보미에 맞선 국내파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장하나(25·비씨카드)와 김지현(26·한화), 이정은(621·토니모리), 오지현(21·KB금융그룹) 등도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하나도 아버지의 고향이 춘천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kt 외국인선수 왔든 너무 성실해서 걱정

야간 훈련까지 자청...조 감독 "부상 염려"



kt 왔든

프로농구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선발할 때 기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실성이다. 팀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해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신뢰를 쌓는 것은 팀플레이를 하는 농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kt 외국인선수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선발한 테렌스 왓슨(31·190cm)은 성실함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왓슨은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당시에는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바운드와 블록슛만은 단신 그룹(193cm이하)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kt 조동현(40) 감독은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공격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왓슨을 뽑았다. 공격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골밑에서의 득점력은 괜찮다.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왓슨은 8월 15일 팀에 합류한 뒤 체력을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아직 30분가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지만, 조 감독은 9월 일본 전지훈련 전까지 차근차근 체력을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왓슨이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다. 조 감독은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혼자 체육관에서 슈팅 연습을 한다. 아직 체력이 완전히 않은데 팀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야간 훈련에도 의욕을 보인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무리하다가 혹시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kt는 지난시즌 개막 이전부터 외국인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크게 고생했다. 조 감독이 올해 오프시즌 때 선수단의 훈련을 대폭 줄인 것도 지난 시즌의 교훈이 있어서였다. 왓슨은 8월 22일 중앙대의 연습경기에서 20여분만 뛰고 29점·10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한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협약식 한국전력(한전)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후원 협약식을 열고, 대회 후원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과 후원사 로고 노출 등 공식파트너에 해당하는 스폰서십 권리를 부여받았다. 한전은 대회 후원과는 별도로 조직위 내 올림픽 전력공급 지원본부를 가동해 설비를 확충하고 최적의 운영을 돕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노태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희봉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환익 한전 사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부터), 뉴스



NH농협 스포츠단 출범 NH농협은행이 스포츠단 출범을 공식발표했다. 이경섭(가운데) 은행장을 비롯해 테니스와 정구 장학생 이은혜 양과 김홍주 군 등이 8월 23일 서울 서대문 본점에서 열린 스포츠단 출범식과 주니어 장학생 후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장 간담회 24일 시도체육회장 평창올림픽 붐업 공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령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서 회원단체장회장 간담회, 시도체육회장 간담회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붐업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회원단체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22일 회원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4일에는 시도체육회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총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회원단체의 현안사항과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에는 대한체육회 정·준·인정회원단체 회장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에는 시도체육회장 및 관계자 40여 명이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기흥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1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회원단체를 포함하여 전 체육인이 앞장서서 올림픽 홍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한중일 주니어대회 선수단 파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이바라키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에 11개 종목, 24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총 980여 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한다. 아시아 스포츠 강국인 3개국의 차세대 국가대표인 고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해 농구, 럭비, 배구, 배드민턴, 역도, 육상, 정구, 축구, 탁구, 테니스, 핸드볼 총 11개 종목에서 합동 훈련과 친선경기를 펼친다. 내년 개최 준비를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차기 개최지 참관단 2명도 참가했다.

24일 이바라키현 켄민 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개국에서 참가한 임원 및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본체육협회에서 마련하는 아쿠아리움, 우주센터 등 문화탐방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오뎅이 레슬러' 류한수, 세계선수권 정상

'조연 인생' 견디고 그레코로만형 66kg 금

류한수(29·삼성생명)가 세계무대에서 한국 레슬링의 힘을 널리 알렸다.

8월 23일(한국시간) 파리 아코르호텔 아래에서 열린 2017 프랑스 세계선수권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마테우시 베르나테크(폴란드)를 2-1로 누르고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2013년 대회에 이은 4년 만의 세계정복이다.

2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근 3차례 세계선수권에서 전부 결승에 올랐다. 무엇보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의 약몽을 완전히 지웠다. 사실이 고무적이다.

당시 류한수는 2013세계선수권~2014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에 이어 리우올림픽에서 '그랜드슬램' 달성을 꿈꿨으나 대회 8강에서 무너졌다. 이어진 패자부활전도 약망이었다. 1차전을 통과했으나 라슬 주나예프(아제르바이잔)와의 동메달결정전을 무기력하게 끝냈다.

그라운드 방에 유난히 약했던 모습이 반복됐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내준 패배를 상황을 버티지 못해 연거푸 옆 굴리기를 허용했다. "메달을 가져와야 했는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말을 잊지 못한 채 서둘러 체육관 믹스트



류한수

존을 빠져나가는 그의 눈은 촉촉한 눈물로 가득했다.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이를 악물었다. 류한수의 레슬링 인생 8할은 철저히 '조연'이었다. 국가대표 2진으로 훈련파트너 생활만 9년을 했다. 지금은

75kg으로 체급을 올린 동갑내기 김현우(29·삼성생명)가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을 땀 때에도 친구의 훈련을 도왔다.

급세 초심을 찾았다. 매트에 있는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부활을 노렸다. 마침 파테르가 이번 대회부터 사라졌다. 스탠딩 자세에서는 천하무적이다. 우승은 당연했다. 태극기를 흔들며 큰절 세리머니를 한 그의 시선은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릴 아시안게임과 2020도쿄올림픽을 향한다. 아직 류한수는 배가 고프다.

한편, 그레코로만형 59kg급 김승학(24·성신양회)은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지만 패자부활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나주 실업육상대회, 별들이 뜬다

24일부터 사흘간 435명 메달 경쟁

한국실업육상연맹(회장 윤형관)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육상연맹, 나주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2017년도 제29회 전국실업육상대회가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다.

남녀 각각 23종목씩 펼쳐질 이번 대회는 실업육상연맹이 관장하는 가장 큰 연간 사업대회 가운데 하나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닌, 전국의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 릴레이 종목은 제외된 선수 개인당 2종목씩 출전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는 총 435명(남자 243명, 여자 19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 종목 우승자들에게는 트로피를 주고, 2~3위 선수들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주어진다.

8월 5일부터 14일(한국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2017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피로누적과 부상을

방지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본 대회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월 중주 일원에서 올 시즌 가장 큰 대회인 2017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 스피린터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 준결승에 오른 '기록 제조기'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은 대회 참가만 하고, 출전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 많다. 남자부에서는 100m 김태호(파주시청)~이재하(서천군청), 800m 김민수(영동군청), 5000m 심종섭(한국전력공사)~손명준(삼성전자), 110m허들 김병준(국군체육부대), 장대높이뛰기 진민섭(인천광역시청), 멀리·세단뛰기 김덕현(광주광역시청), 포환던지기 정일우(성남시청), 원반던지기 이현재(용인시청), 해머던지기 이윤철(음성군청) 등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자들은 100m허들의 정혜림(광주광역시청), 장대높이뛰기의 최예은(익산시청)~임은지(대구광역시청) 등이 주목을 끄는 선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